SEDEX 2017
The 19th Semiconductor Exhibition

SEDEX 2017 Review

Korea Semiconductor Industry Association

2017.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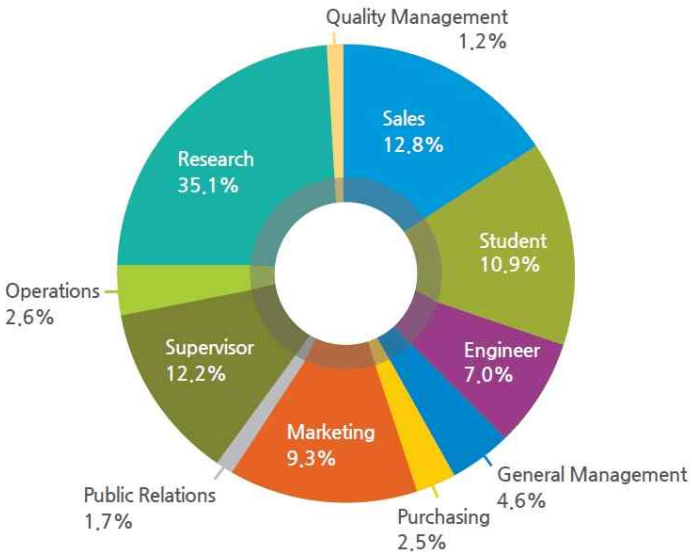
2017 Attend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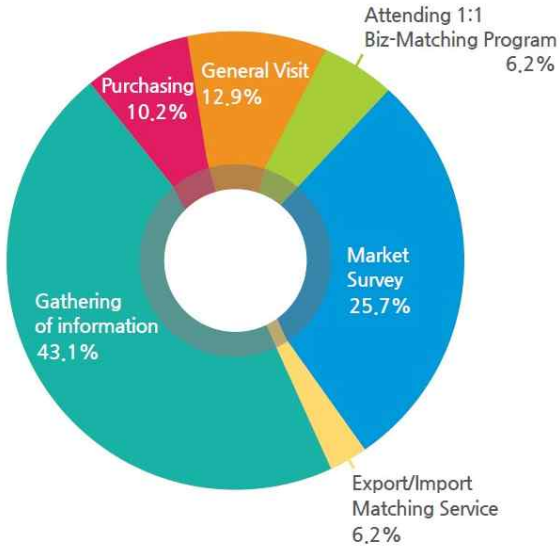
SEDEX 2017
The 19th Semiconductor Exhibition

Total Exhibitors/Booths 200/ 520

Total Visitors 63,184

- Hall A·B (1F) visitor **41,284**
- Hall C (3F) visitor **14,424**
- Hall D (3F) visitor **7,4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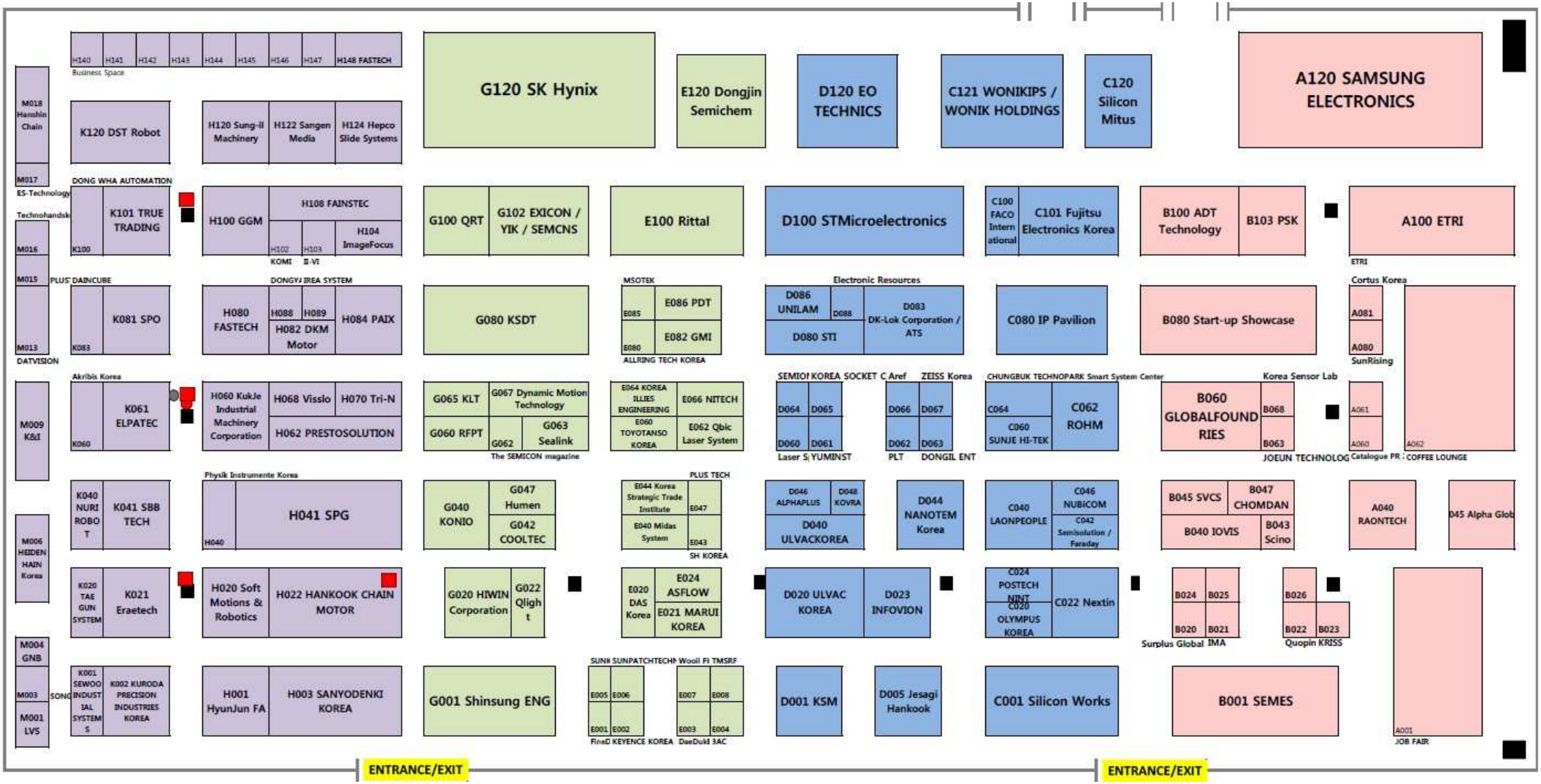


Top Visiting Companies

- Amkor Technology
- Dongjin Semichem
- EO Technics
- GLOBALFOUNDRIES
- Huawei
- Hyundai Mobis
- INTEL
- KT
- LG Electronics
- LG Siltron
- MagnaChip
- OPPO
- SAMSUNG ELECTRONICS
- SEMES
- SK Telecom
- SKhynix
- SMIC
- SONY
- Statschippac
- TSMC
- UMC
- WONIK

2017 Floor Plan (Hall C)

SEDEX 2017
The 19th Semiconductor Exhibition



※ To download 2017 Exhibitor list, please click ▶ SEDEX Exhibitor List

2017 SEDEX REVIEW

SEDEX 2017
The 19th Semiconductor Exhibition



SEDEX Floor Tour



Overseas Buyer Trade Meeting



Market Trend Seminar



SEDEX Floor Tour



IP-SoC Design Conference



Buyer Trade Meeting

- Representatives from YMTC, HLMC and CR Micro based in China were invited to SEDEX as overseas buyers. SEDEX exhibitors were given exclusive opportunities to connect with these buyers and extend their professional network. One-on-One biz matching program was also available for our exhibitors to seek out new business alliances and suppliers like Samsung Electronics, SK Hynix and Dongbu Hitek.
- Foundries, Semiconductor IP design houses and fabless participated in IP-SoC Design Conference, highlighted the whole spectrum of IP leading to innovative applications AI, Autonomous Vehicle, Deep Learning, IoT.

2017 SEDEX REVIEW

SEDEX 2017
The 19th Semiconductor Exhibition



Start-up Showcase



Semiconductor Design Awards



IP Pavillion



Semiconductor Job Fair



Semiconductor Job Fair



Career Development Seminar

- Following last year, Start-up Showcase was once more organized to support 10 promising Korean Semiconductor start-ups including Fadu, Pine Solution, etc. In parallel, Semiconductor IR Conference was held to promote networking opportunities among VC firms, PEFs, SMEs, and start-ups.
- During the exhibition period, KSIA ran a Job Fair for students who are interested in pursuing careers in Semiconductor Industry. Students visited exhibition stands to receive careers advice and have interviews, network with prospective employers like Samsung, Skhynix and other equipment/material companies.

2017 SEDEX Opening Keynote

SEDEX 2017
The 19th Semiconductor Exhibition









- This year's Semiconductor Exhibition kicked off with the theme of "How 4th Industrial Revolution Works". At the opening keynote session, Mr. Jo Sung-ho, senior director of network technology R&D at SK Telecom, Mr. Martin Wöhrle, Head of R&D at BMW Korea and Mr. Len Jelinek, Director & Chief Analyst at IHS Markit delivered presentations about 5G, Connected Car and global Semiconductor Industry forecast.

세미솔루션, 대만 패러데이와 'SEDEX 2017' 공동 참가

사물인터넷과 커넥티드카를 위한 차세대 주문형반도체 플랫폼 공개

머니투데이 창조기획팀 전혜나 기자 | 입력 : 2017.10.17 16:42

기사 | 소셜댓글(0) | 기사공유 | 가 + −

주문형반도체 및 임베디드IoT시스템 전문기업 ㈜세미솔루션이 자사의 전략 파트너이자 글로벌 ASIC서비스 전문기업인 대만의 패러데이(Faraday)와 함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반도체대전(SEDEX 2017)에 참가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제공=세미솔루션

반도체대전(SEDEX 2017)은 반도체산업 생태계 전 분야가 참가하는 전문 전시회로 17일부터 오는 19일까지 3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 C홀에서 반도체 관련 6개국 160개사, 500여개 부스 규모로 개최된다. 주문형반도체 업력 10년 이상의 중견기업 세미솔루션은 이번 전시회에서 새로운 ASIC플랫폼 및 선진 IP기술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이정원 세미솔루션 대표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시스템반도체 및 임베디드IoT시스템을 아우르는 다양한 솔루션과 서비스 프로그램을 공개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고객 니즈에 부응하여 고객 만족을 극대화시키며, 이를 통해 진정한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밝혔다.

세미솔루션은 이번 전시회에서 IoT시대에 걸맞은 다양한 차세대 서비스도 국내 고객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이에 한국반도체협회 주관 부대행사인 'IP-SoC Design Conference 2017'에서 공개 발표하는 'ASIC Platform Solution for IoT, Automotive and Cloud' 주제 세션이 주목된다.

로옴, SEDEX 2017에서 온(on) 저항을 낮춘 3세대 SIC-MOSFET 선보여

기사입력 2017-10-19 10:42:45

가 - 가 +



로옴세미컨덕터코리아 권달중 책임이 전시회 출품 제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산업일보]

반도체 전문 기업 로옴(ROHM) 주식회사(한국지사_로옴세미컨덕터 코리아)가 코엑스에서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개최되고 있는 반도체대전(SEDEX 2017)에 참가해 첨단 반도체 솔루션을 선보였다.

이번 전시회에서 로옴은 파워 솔루션, 아날로그 솔루션, 오토모티브 솔루션, IoT 솔루션 분야로 구분해 참객들을 맞았다.

로옴은 2세대, 3세대 실리콘카바이드 모스펫(SiC-MOSFET) SCT, SCH2시리즈, 그리고 SCT3시리즈를 소개했다. " 이 제품들은 고속 스위칭, 저 온(ON) 저항화를 실현했으며, 2세대에서 3세대로 가면서 온저항을 50% 더 낮추게 됐으며 전력 손실도 줄였다. 특히 스위칭 손실을 IGBT(스위칭 소자) 대비 73%(30kHz 기준)까지 삭감해 에너지 절약에 효과가 큰 제품이다"고 로옴세미컨덕터 코리아 권달중 책임은 설명했다.

반도체로 구현한 'IoT 세상'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SEDEX 2017'서 스마트홈 데모 진행

최신 반도체 기술·시장 흐름을 한눈에 알아보는 '제19회 반도체대전(SEDEX)'이 17일부터 19일까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반도체 장비, 소재, 부품, 설계, 재료, 설비 등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전 분야에서 180여 기업이 517부스 규모로 참여, 각자 보유한 기술과 제품의 우수성을 알렸다.

이중 글로벌 반도체 기업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이하 ST)는 반도체와 보드를 이용해 사물인터넷(IoT) 세상과 스마트 홈을 구현해 관람객들의 주목을 받았다. ST의 스마트 홈 데모 현장을 찾았다.

"ST의 스마트홈 데모는 다양한 가전과 설비를 네트워크로 연결해 일괄 관리하는 다양한 반도체 솔루션을 소개합니다. 어린이와 어르신, 애완동물까지 쾌적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가까운 미래의 우리 생활이 될 것입니다."



ST 관계자의 소개 멘트가 끝나며 데모가 시작됐다.

미니어처로 구현된 스마트 홈 곳곳에 ST의 반도체 보드가 설치돼 있는 모습이 보인다. 도어락과 현관, LED 조명, 에어컨, 각종 화분이 들어찬 온실까지 우리네 일상이 아기자기하게 표현돼 있다.

ST 관계자는 "스마트홈 데모는 총 8개로 구성돼 있다"며 "모두 ST의 32비트 MCU 개발보드 '누을 인식했을 때만 잠금을 해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ST 관계자가 카메라에 얼굴을 가져가니 스마트 스토리지가 자동으로 열리는 모습이 보인다.

이번에는 가족의 이동, 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가동됐다. 노인을 표현한 듯한 인형이 움직이자 이에 맞춰 LED 전등이 순차적으로 켜진다. 근접센서를 적용해 LED등을 켜 노인이 어두운 복도를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돕는 모습이다.

노인의 움직임이 멀리 떨어져 있는 모바일 기기와 주방 모니터 등에 화살표로 나타나는 장면이 보인다. 가족 중 노인이 있을 경우 안전 걱정을 한결 덜 수 있는 방법이다.

에어컨과 애완동물 사료, 계량기, 도어락 등을 보다 스마트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소개됐다.

환경센서와 MCU, BLE 보드를 통해 실내 온·습도, 대기압데이터를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고, 에어컨 스위치를 켜고 끄는 시범을 보인다.

모바일 기기를 통해 애완동물의 사료가 텅 비어 있는 상황을 확인하고, 이를 채워주자 '풀(full)'로 바뀌는 장면이 이어졌다.

지진을 감지한 스마트 계량기가 화재 등 추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원을 차단하는 모습도 소개

충북테크노파크, '충북 반도체 우수성' 세계시장 홍보

17~19일 서울 코엑스 개최 '반도체대전(SEDEX) 2017' 참가

김동식 기자 | 최종편집 2017.10.13 11:54:10

충북테크노파크
CHUNGBUK TECHNOPARK

17~19일 서울 코엑스 개최 '반도체대전(SEDEX) 2017' 참가
충북테크노파크(이하 충북TP)가 오는 17~19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19회 2017 반도체대전(SEDEX 2017)'에 참가해 충북 주력산업인 반도체의 우수성을 알린다고 13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반도체산업협회(KSIA)에서 주관하는 이번 대전은 반도체산업 최신 기술 트렌드 동향파악과 각종 기술교류의 장으로 6개국 160개사 500개 부스를 운영하는 국내 단일 반도체 전시회 중 최대 규모이다.

충북TP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충북 반도체산업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의 시제품 개발, 인증 등 지원사업의 계획과 성공사례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반도체·디스플레이산업 기술개발지원기반플랫폼'을 통해 중소기업 제품개발을 위한 플랫폼 공동장비이용 서비스를 소개할 계획이다.

현재 충북TP와 충남TP, 서울TP, 나노종합기술원, 구미전자정보기술원으로 구성된 플랫폼은 각 기관별 보유장비를 연계 활용해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중소기업의 신속한 기술개발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관람객을 대상으로 충북TP의 기업지원 서비스를 소개하고, 충북TP 스마트시스템센터의 보유장비 이용을 희망하는 기업들에 현장부스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진태 원장은 "이번 전시회는 메모리?시스템반도체, 센서 등 다양한 분야의 미래를 선도하는 첨단제품을 접할 수 있는 종합 전시회이며, 글로벌 시장 트랜드를 접할 수 있는 기회"라며 "충북이 반도체·소재·부품산업의 성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newdaily.co.kr

2017 SEDEX NEWSⅢ (Korean only)

SEDEX 2017
The 19th Semiconductor Exhibition

머니투데이

[상생협력] 에너지세이빙 제품 통해 ENG사업분야 이끈다, ㈜신성이엔지

본문듣기 | 설정

기사입력 2017-10-12 15:46 | 기사원문

6 | 댓글



핸드형 파티클 가시화 장치를 시연 중인 안윤수 사장

㈜신성이엔지는 파티클 가시화 시스템을 통해 생산수율 개선과 불량률 감소에 기여하고 있다. 파티클 가시화 시스템은 미세먼지가 레이저와 부딪혀 산란되는 산란광을 고감도 카메라로 영상화하는 장비다.

"초정밀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먼지"라며 "먼지가 어디서 발생하는지 파악하고 생산 동선 및 환경개선을 컨설팅 해주는 것이 신성이엔지의 서비스 내용"이라는 것이 안윤수 사장의 설명이다.

신성이엔지는 이 시스템을 조금 더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핸디형 파티클 가시화 장치도 개발했다. 이 제품은 손에 들고 파티클(먼지)을 감지할 수 있는 제품으로, 기존에 2인 이상 필요했던 작업을 1인이 진행할 수 있게 했다. 가격 경쟁력 또한 수입 제품과 비교했을 때 높다.

안 사장은 "FFU 기술, 파티클 가시화 시스템 등 신성이엔지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활용해 실생활에서 조금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제품들을 기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성이엔지는 에너지 세이브 장비로 고객들을 찾을 계획이다. 일본 서부기연과의 MOU를 통해 40% 이상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드라이룸을 개발하는 것도 그 일환이다. 안윤수 사장은 "에너지 세이브 장비를 통해 고객사들의 원가와 운영비 모두를 절감시켜줄 수 있는 제품을 기획했다"고 전했다.

창립 40주년을 맞은 신성이엔지의 비전도 전달했다. "열정으로 40년, 정성으로 60년, 희망의 100년 기업이 되기 위해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고 밝혔다. 신성이엔지의 에너지 절감 제품 등 ENG 제품들은 2017 SEDEX 반도체대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데일리

[포토]'첨단 기술 한자리에'..반도체대전 막 올랐다

본문듣기 | 설정

기사입력 2017-10-17 14:12 | 기사원문

공감 | 댓글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국내 최대 종합 반도체 전시회인 '제 19회 반도체대전(SEDEX)'이 17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막했다.

오는 19일까지 사흘간 진행되는 이번 '반도체대전'은 삼성전자(005930)·SK하이닉스(000660)를 비롯해 반도체 장비, 소재, 부품, 설계, 재료, 설비기업 등 반도체 산업 내 전 분야 180개 기업이 참여,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반도체대전(SEDEX)이 17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막했다. 사진은 반도체대전 오프닝 키노트에서 조성호 SK텔레콤 네트워크 랩장이 5G와 반도체에 대해 발표하는 모습



▲반도체대전(SEDEX)이 17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막했다. 사진은 참관객들이 삼성전자 전시 부스를 관람하고 있는 모습

전자신문

반도체대전, 최첨단 반도체 보러 오세요

본문듣기 | 설정

기사입력 2017-10-17 14:54 | 기사원문

2 | 댓글



최첨단 반도체 장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반도체대전(SEDEX)'이 1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됐다.



에이디테크놀로지부스에서 관람객들이 다양한 종류의 반도체 웨이퍼를 보고 있다.

김동욱기자 gphoto@etnews.com

매경이코노미

반도체 슈퍼 사이클 배경은 인공지능·IoT·클라우드…칩 수요 폭발 1~2년간 공급부족 D램 가격 급상승

본문듣기 설정

기사입력 2017-10-27 09:09 기사원문

7 13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전에 없던 호황을 누리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IHS마킷은 지난해 819억7200만달러(약 93조원)를 기록한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가 올해 51%가량 성장해 1238억500만달러(약 140조원)에 달할 거라 전망했다. 존 뉴퍼 미국반도체산업협회장 또한 "메모리 반도체가 전체 시장 성장을 이끌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선 선두주자지만 시스템 반도체 부문에선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0월 17~19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반도체대전. <사진 : 윤관식 기자>

ChosunBiz

박성욱 SK하이닉스 부회장 "내년 상반기까지 메모리 반도체 호황 계속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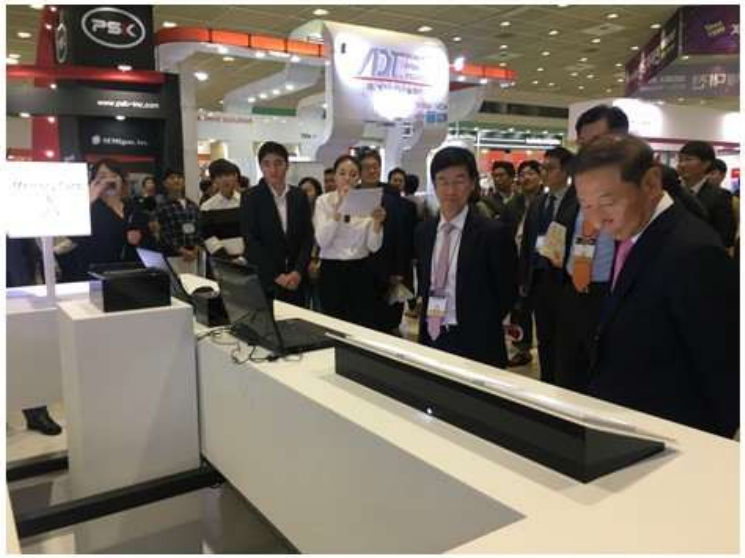
본문듣기 설정

기사입력 2017-10-17 17:16 기사원문

5 8

박성욱 SK하이닉스 부회장이 2018년 상반기까지 메모리 반도체 호황이 계속된다고 평가했다.

박 부회장은 1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19회 반도체대전(SEDEX)'에서 기자들과 만나 반도체 호황 지속 여부에 관해 "(반도체 호황이) 내년 상반기까지 좋은 것이 확실하다"면서도 "내년 하반기에 수요는 계속 있지만, 공급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는 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욱 SK하이닉스 부회장이 17일 코엑스에서 열린 반도체대전에서 전시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 이다비 기자

박 부회장은 여러 자리에서 메모리 반도체 호황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밝힌 바 있다.

2017 SEDEX

SEDEX 2017
The 19th Semiconductor Exhibition



















2017 SEDEX Video

SEDEX 2017
The 19th Semiconductor Exhibition



https://www.youtube.com/watch?v=NSmPmoY7qc4

KSIA KOREA SEMICONDUCTOR INDUSTRY ASSOCIATION

THANK YOU!

CONTACT

☎ +82-2-570-5275

Email. smpark@ksia.or.kr

Website. www.sedex.org